

대학가 On Air

대학가 소식은 각 대학의 추천으로 선발된 대학생 명예기자들이 대학생 특유의 젊고, 참신하고, 날카롭고, 따뜻한 시각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캠퍼스 현장의 소식과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과·제빵 관련 행사, 대학가 주변의 다양한 인물과 화제 등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꾸며집니다.

장애아 가족과 함께 한 아름다운 봉사

케이크 만들기로 나눔사랑 실천

글과 사진_송여희 창원전문대 명예기자

창원전문대학 호텔제과제빵과(담당교수 정순경)는 지난 8월 27일 창원시 사림동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아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사회복지사의 요청에 창원전문대학 호텔제과제빵과에서 선뜻 응해 이뤄졌다.

봉사활동을 지원한 2학년 재학생 6명과 정순경 교수는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케이크를'이라는 주제로 23명의 장애 어린이, 가족 70여 명과 함께 준비한 케이크 시트와 재료를 이용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던 장애 어린이는 연신 즐거워하며 케이크 만들기에 열중했다. 이날 가장 열심히 한 가족에게는 정순경 교수가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날 참석한 장애 어린이의 연령대가 대부분 6~7세로 케이크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즐거워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서로 더욱 친밀해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10월에는 함안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창원전문대 호텔제과제빵과는 행사를 원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언제든지 방문해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졸업생과 동문 선배들의 화합의 장

제4회 제과제빵과 졸업작품 전시회

글과 사진_안주화 한국관광대학 명예기자



한국관광대학 제과제빵과(학과장 신승녕)는 지난 9월 14일 본교 4층 강의실에서 제4회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졸업을 앞둔 2학년 재학생들은 2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낸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쿠키, 케이크, 초콜릿, 빵 등을 중심으로 한 개인작품 50점과 설탕공예, 초콜릿공예, 빵공예, 파스티 야주, 쿠키하우스 등을 제작한 단체작품 13점이 전시된 졸업작품전시회를 위해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작품구상을 하고 작품에 어울리는 디스플레이, 소품활용 등을 연구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학생들은 신현수 외래강사에게 초콜릿공예, 설탕공예 특강을 받고 각 분야 전문기술 인들에게 조언을 받는 등 2년 동안 배운 기술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특히 웨딩 트렌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만든 백김치 무스케이크, 무화과 호두찐빵, 송화쿠키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 등은 학과 관련인사와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시회에는 재학생, 학부모, 아현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친절하게 전시장을 안내하고 후배들의 작품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동문 선배들의 초콜릿공예 찬조작품이 전시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작품 전시회를 준비한 졸업생들은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작품을 선보이며 아쉬움을 전했다. ☺